

C1006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 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하나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V062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험, 개방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17.05.12
운용기간	2025.01.01 ~ 2025.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투자 목적은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자산 총액 (A)	4,795	4,483	-6.52
	부채 총액 (B)	2	2	-7.37
	순자산총액 (C=A-B)	4,793	4,481	-6.52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3,544	3,344	-5.65
	기준가격 (E=C/D × 1000)	1,352.56	1,340.14	-0.92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이번 분기 펀드는 주식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펀드에서 편입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경우 유틸리티/에너지 인프라 등 방어적인 인프라 업종에 분산되어 있어 변동성이 제한적이었고, 관세 영향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과가 양호했습니다. 더불어 유럽 시장의 경우 독일에서 재경 확대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상승했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성과를 반영하면서 유럽 인프라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반면 펀드에서 편입한 미국 상장 인프라 ETF는 경기 침체 우려로 전자재/산업재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부진했습니다.

* 동 펀드는 재간접펀드 내에서 환헤지를 하고 있으며, 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63.82%의 헤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물환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 헤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펀드내 설정/헤지, 추가변동, 환율 변동 및 펀드 규모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4월 초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관세와 더불어 관세 측정 방식이 모호하여 정책 신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확대하고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력/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견조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인프라 업종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장기 금리가 하락한 것이 오히려 수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에너지 수출 확대 정책 기조와 더불어 빅테크 기업의 전력 수요가 연간 성장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상상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드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비중을 유지하는 한편, 경기 민감주들의 비중이 높은 미국 상장 인프라의 비중을 조정하면서 펀드 성과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0.92	4.52	12.05	13.48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13.48	9.79	4.49	28.84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7	-	-	210	-	-	-	-	-	2	7	225
당기	-	-	-	-35	-	-	-	-	-	4	-1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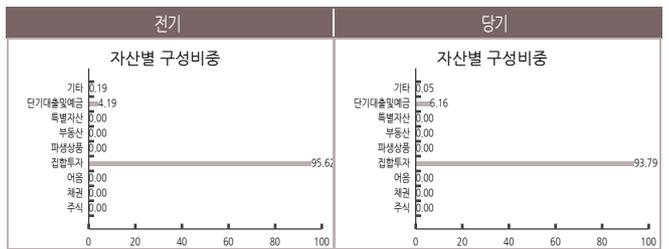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USD	0	0	0	1,791	0	0	0	0	0	227	0	2,018
(1,472.90)	(0.00)	(0.00)	(0.00)	(39.96)	(0.00)	(0.00)	(0.00)	(0.00)	(0.00)	(5.06)	(0.00)	(45.02)
KRW	0	0	0	2,413	0	0	0	0	0	49	2	2,465
(1.00)	(0.00)	(0.00)	(0.00)	(53.83)	(0.00)	(0.00)	(0.00)	(0.00)	(0.00)	(1.09)	(0.05)	(54.98)
합 계	0	0	0	4,204	0	0	0	0	0	276	2	4,483

※ (): 구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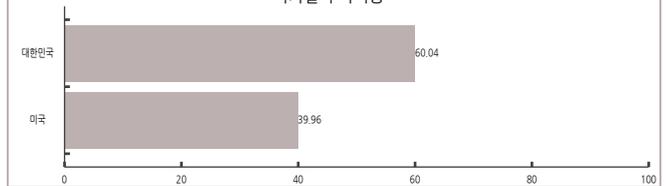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대한민국	60.04	6		
2	미국	39.96	7		
3			8		
4			9		
5			10		

▶ 국가별 투자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재주식CF	50.00	6		
2	집합투자증권	GLOBAL X US INFRASTRUCTURE	39.96	7		
3	단기상품	USD Deposit(CIFKR)	5.06	8		
4	집합투자증권	RISE 단기통안채	3.84	9		
5	단기상품	은대(국민은행)	1.09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재주식CF	주식형	1,540	2,241	대한민국	KRW	50.00
GLOBAL X US INFRASTRUCTURE	수익증권	1,924	1,791	미국	USD	39.96
RISE 단기통안채	수익증권	171	172	대한민국	KRW	3.84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외화예금	한국씨티은행	2022-08-23	227	0.00	-	대한민국	USD
예금	국민은행	2017-05-12	49	2.30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76	2,184,570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6	2,184,570	2119000109
윤유라	과장	76	2,184,570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	0	-
판매회사	5	0.11	5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6	0.12	5	0.12
기타비용	0	0.01	0	-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ESG관련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5037	0.0173	0.521
당기	0.485	0.0134	0.498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치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해당사항 없음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